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21곳→11곳 축소… 교계 “정체성 위협”

교육부 “현실 반영일 뿐”… 교단·신학교는 긴장 속 대응 나서

교육부가 최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기독교계 신학대학들이 대거 명단에서 빠지는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 대해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폐교나 학과 신설, 운영 목적 변경 등 현실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은 기존 21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개신교계에서 그동안 명단에 포함돼 있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등 주요 신학교들이 이번 조정에서 빠졌다.

대학원대학 역시 복음신학대학원대학, 순복음대학원대학, 개신대학원대학, 중앙신학대학원대학 등이 제외 대상에 올랐다.

남은 개신교 대학은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대전신학대학교 두 곳뿐이다. 대학원대학은 기존 성서침례대학원대학과 서울성경대학원대학 외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새로 자정돼 4곳이 됐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소속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1개 법인만 남는다.

이 제도는 2008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만들어졌다. 당시 종교적 정체성을 가

진 학교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정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별도로 지정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일반 대학 법인은 이사회 구성 시 일정 비율의 개방이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은 해당 종교단체가 개방이사 추천권 절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 당시 개방이사 제도를 신설할 경우 종교사학들의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번 고시는 ‘개방이사 제도’ 적용 방식에 영향을 주는 성격을 갖는다.

교육부는 “그동안 해당 명단이 실제 행정이나 재정지원 판단에 사용된 적은 없으며, 이번 개정도 법적 효력을 현실에 맞



(오른쪽부터)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기독일보DB

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프린스턴, 풀러신학교 등은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며, 교단 주도의 이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독일스위스 역시 국립대 신학부라 할지라도 교단과 협약을 통해 교수 임용이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일본 또한 도쿄신학대학 등 교단 중심의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부의 최종 고시는 9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발령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다. 효력이 발생한다. 신학계는 이번 조치가 당장 재정 지원이나 운영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종교사학의 정체성과 독립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형구 기자

목사들이 ‘설교 준비’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역할은 무엇일까.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목회 628명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역할을 묻는 조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인 간 갈등 조정’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설교 준비’ 33%, ‘다음세대 양육’ 9%, ‘성도 돌봄 및 상담’ 8% 등의 순이었다.

목데연은 “특히 교인 간의 갈등 조정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 것은 목회 현장에서의 관계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목회자의 상당적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담임목사와의 관계 문제(갈등, 보조 등), ‘가정의 생계 부담’, ‘전도’ 등이 있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 “열방 향한 복음 통로 되길”… 제33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개막

1일까지 진행… 국내외 기독미술인 40여 명 참여



고민경의 My Lord, My road. ©노형구 기자



(왼쪽부터) 김갑수의 비상하라, 생명\_부활, 나무와 새 ©노형구 기자



이창수의 샛별되신 주 ©노형구 기자

한국미술인선교회(회장 신혜정)가 주최하는 제33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이 지난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다. 28일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시상식이 동일한 장소에서 열렸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본 미술대전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적 조형 활동의 근원이자 모형”이라는 신앙고백 위에

이날 시상식에서 ‘섬기려면, 섬기면’(요12: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병호 목사(백석대 기독교미술학 교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일의 전제로 예술은 기도하는 시간만큼 나온다”고 했다.

이어 개회사를 전한 한국미술인선교회 신혜정 회장은 “기독 미술은 사랑과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선교로서 작가들은 성경 말씀의 묵상을 작품에서 담아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한국미술인선교회 16대 회장 정두옥 운영위원장은 “작품 하나 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담겼는지 느끼면서 관람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영화 심사위원장은 종평에서 “황금십자가를 마다하고 나무십자가를 자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속문화의 골목에서 방황하던 미술을 찬조의 본향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기독미술은 새롭고 건강하게, 아름답고 힘차게 다시 꽂고자 한다”고 했다.



오른쪽부터 사회자 이기선 사무국장, 골든십자가상 수상자 고민경·김갑수·이창수 ©노형구 기자



행사를 기념하면서 단체 사진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노형구 기자

고 강조했다.

한국미술인선교회는 “이번 전시가 기독미술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작가들의 신앙 고백이 시각예술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예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